

## 논평 : 濟州島民의 信仰體系와 巫俗

윤 이 흠\*

제주도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관계로 제주도무속의 현장 감각이 없어 두려움이 앞선다. 이러한 이유로 문화의 현장 감각을 피하여 전체적인 framework, 시각에 관한 문제만 집중해서 몇가지 이야기 하고자 한다.

현교수님의 論旨에 따르면, 첫째로 巫俗이 歷史的으로 外部宗教인 佛敎·儒敎·基督敎같은 종교들이 들어올 때에 收容의 主體가 되었다. 둘째로 현재의 통계가 18.5%, 19%가 사실상 外來宗教이고 81%가 나머지이다. 이 나머지가 巫俗이다. 그런데 나머지가 巫俗이라는 증거가 분명치 않다. 이런 생각에는 몇가지 이유가 있다.

韓國學界에서 巫俗이라는 말을 써 오면서 巫俗이 곧 民間信仰과 동일한 것으로 여겨왔다. 현교수님의 글 14페이지에 民間信仰이라는 말과 巫俗이라는 말을 사실상 완벽하게 같은 의미로 썼다. 문제는 濟州島에 있는 유교·불교·기독교의 제도적인 宗教이외의 것은 民間信仰이라 할 수 있는지 또 民間信仰이 제주도 context 속에서 무속과 완전히 같은 것인지 나는 잘 모르겠다. 거기에 대한 언급이 있었으면 하는 것이 한가지이다.

현선생님은 문화의 여러 복합요인에 대해 말하였다. 제주도에서는 民間信仰·巫俗이 기본이 되고 다른 종교와의 복합한, 문화의 이중구조를 가졌다고 지적하였다. 祈禱의인 것은 女子, 體制·思想的인 것은 男子가 善好하는 二重構造이다. 이는 서울에도 지금 같은 실정이다. 예를들면 큰 음악회에는 95%가 女子이고, 5%가 끌려간 남자인 실정이다. 이것은 동양의 전통 사회에서 종교문화를 받아들인 경우에 흔히 발견되는 문제를 제주도에서 체계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이라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 서울대

또한 마지막 부분에서 종교 신앙층은 심히 現世利益的, 功利的인 태도를 갖고 있다고 하셨다. 現世利益的・功利的 태도는 祈福信仰이 갖는 일반적인 특성이다. 이 말은 祈福信仰이 濟州巫俗에서 基本的인 사상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